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3460-1280)

차 례 ●●●

1. 2014년 지방 양회(兩會) 주요 이슈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경제정책 방향 비교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4년 지난 1~2월 중국 31개 지역에서 지방 양회(兩會)가 개최되었으며 대기오염, 2자녀 허용정책, 정부기능 전환 및 공무원경비 축소, 신형도시화 및 민생 관련 이슈 등이 대다수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GDP 평가 폐지, 정보화 기반 구축, 토지제도 개혁, 자유무역시범구 및 실크로드 등 지역개발 이슈가 논의됨.
- ▶ 대다수 지역은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도 목표 대비 하향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개혁심화 방침에 맞춰 개혁영역을 확대하였으나 지역별로 개혁 분야 및 내용, 우선순위 등이 상이하며, 특히 서부 일부지역은 여전히 경제의 도약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음.
 - 광둥성만 유일하게 경제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8% → 8.5%)하였고, 대다수 지역은 2013년 실제로 달성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률 목표를 조정하였음.
- ▶ 올해 강조된 개혁방식의 핵심은 정부기능 전환과 시장기능 강화이나, 각 지역의 제반여건과 개혁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및 실천능력 등에 따라 개혁성과가 달라질 것임.
 -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시장개입 최소화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성장 지향성이 강한 지역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기업과의 결탁 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큼.
- ▶ 중국 각 지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신형도시화, 환경보호, 정보화 추세 등과 관련된 시장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각 지역의 도시개발 시장은 우리의 건설, IT, 환경 기업 등에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형 도시화 및 지방부채 심화 등으로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심화가 예상됨.
 - 지역별로 환경오염 분야 및 정도, 개선의지, 산업기반 등이 달라 오염산업 도태와 환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진출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고도화 및 소비수요 확대 측면에서 각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대되고 이러한 정보화 추세가 경제사회 전반에 파생될 전망이므로 이에 따른 시장 변화와 진출 기회를 파악해야 함.

1. 2014년 지방 양회(兩會) 주요 이슈

■ 2014년 1월 4일 닝샤(宁夏)를 시작으로 2월 15일 후난(湖南)까지, 중국 31개 지역(省·市·自治區)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에는 특히 회의 진행상의 내실화가 중시되었음.

- 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2가지 회의로 구성된 지방 양회는 매년 1~2월경에 개최되는 각 지방정부의 회의로 지방정부 수장 선출, 중앙양회에 참석할 대표단 구성, 지난 정책성과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등 중대 사안이 논의·공표되는 최대 정치행사임.¹⁾
- 2014년 각 지역은 회의 진행상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양회의 개최기간을 전년도(7.9일)보다 평균 1.2일 단축시켰으며, 특히 윈난(云南)과 허난(河南)은 모두 4.5일을 단축하여 각각 5.5일과 6.5일로 회의 일정을 압축함.²⁾
- 또한 회의 참석 인원 수 역시 인민대표대회의 25% 이상, 정치협상회의의 33% 이상을 축소하였고, 회의자료의 분량 역시 20~50% 절감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줌.

■ 이번 지방 양회에서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单独两孩), 정부기능 전환 및 공무원비 축소, 신형도시화 및 민생 관련 이슈 등이 대다수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음.³⁾

- 양회기간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으로, 베이징은 2017년까지 7,600억 위안을 대기오염 관리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고 장쑤성은 2014년 50억 위안을 스모그 관리에 투자할 계획이며 허베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제시함.⁴⁾
 - 향후 3~4년간 환경에 대한 투자가 1조 위안 이상 증대될 전망이며, 화북 및 장삼각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장삼각 및 주삼각 지역에서는 수질오염 문제를 강조하였음.
- 중국은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2자녀 출산(제한적 2자녀 정책)을 허용해오다가 상하이, 장쑤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부 중 한쪽이 독자이면 2자녀 출산을 허용하도록 완화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다른 지역들도 이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시행을 검토 중임.
- 한편 일부 지역의 양회 대표들은 이 정책의 시행으로 새로운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행정권한 목록 제정, 행정 결정과정 공개, 성(省)급 정부와 기업의 자금결탁 해결방안 등 정부기능의 전

1)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인민대표대회는 사회민생법안의 제정 및 개정, 행정부·법원·검찰원의 수장 선출 및 감독, 정부 예산 및 결산 심사, 이익갈등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한편 최고정책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는 정치통합을 위한 자문기구이며 중국의 모든 정당, 정파, 사회단체, 소수민족,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함. 지방 양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규(2010. 3. 12), 「2010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KIEP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10-1호 참고.

2) 각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기간은 2013년 대비 평균 1.6일 단축된 5일 정도로, 정치협상회의의 기간은 평균 1일 단축된 4.6일 정도로 축소됨.

3) 「地方两会热词盘点」(2014. 2. 13), 『解放军报』.

4) 「聚焦地方两会：万亿环保投资冲动」(2014. 2. 7), 『南方都市报』.

환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었고 특히 공무원의 접대비·해외출장비·공무차량 구매 및 유지비(이하 3공경비) 절감이 201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논의됨.

- 대다수 지역 각급 정부의 재정예산보고에서 민생 관련 예산은 모두 크게 증가한 데 반해 3공경비 및 행정경비 예산은 모두 축소됨. 특히 저장성은 30%, 베이징은 12%, 상하이는 11.2%의 절감안을 제시함.
-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를 비롯하여 양로, 의료, 교육, 최저생계보장 등 민생개선 이슈가 광범위하게 논의됨.

표 1. 2014년 중국 지역별 양회의 주요 이슈

지역(省)	주요 이슈	지역(省)	주요 이슈		
화북	베이징 (北京)	도시병, 계단식 수도세,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대기오염 관리조례, 공무차량 구매 정지, 양로, 베이징 호적	동북	랴오닝 (遼寧)	호적개혁, 생태환경, 교육 취업, 의료·양로, 전자상거래, 보장주택 건설
	톈진 (天津)	의료시스템 개혁,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도시광장 구축, 공업고도화, 정부기능전환		헤이룽장 (黑龍江)	현대농업 종합개혁, 현대 대농업, 도농 의료 서비스일체화,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연변 자유무역구
	허베이 (河北)	대기오염 관리, 에너지 절약·오염배출 감축, 도시정착, 빈곤지역 GDP평가 폐지, 구조조정, 노무파견, 인재분류 평가기제		충칭 (重慶)	산업고도화, 삼농, 특색농업, 신형도시화, 의약보건체제개혁, 재세시스템 개혁
	산둥 (山東)	역내협조발전, 스모그연합관리, 스마트산둥, 생산과잉, 산둥반도 녹색경제구·황허삼각주 등 지역개발		네이멍구 (內蒙古)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컴퓨팅, 만촌천향(萬村千鄉), 시장화, 탄소거래, 혼합소유제
화동	상하이 (上海)	자유무역시범구, 스모그, 제조업고도화, 거주중제도, 인재강화, 행정간소화·권한이양, 도시관리		쓰촨 (四川)	전역 무료 의료교육, 먼지연무 방지, 식품안전, 의료-환자 연계, 생태관광농업
	장쑤 (江蘇)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대기오염관리, 생태, 주택보장, 교육 헤민, 취업·창업		산시 (陝西)	시셴(西咸) 지역 일체화, 3개 전략목표, 실크로드 경제벨트, 스모그 관리, 내륙 국제공항 구축, 구제기금, 신형 농촌합작의료
	저장 (浙江)	8% 성장률 유지, 행정권한 목록, 의료제도 개혁, 스모그 관리, 수자원 관리, 사회양로서비스		광시 (廣西)	말레이시아와 협력, 해상실크로드, 현대종합교통운수시스템, "12310" 고속철정제권, 의료-양로 융합, 100억 위안 산업단지
	푸젠 (福建)	개혁보너스, 서기동수(西气东输), 농촌양로, 현(縣)급 공립병원 인제 구축,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도시 최저생계보장	서부	칭하이 (青海)	고속철시대, 新실크로드전략기지, 경제·생태·민생, 양로,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중부	광둥 (廣東)	의료보험, PM2.5, 먼지연무, 자유무역구, 전역 무료 Wi-Fi, 개혁심화, 민생보장, 기초교육		윈난 (雲南)	삼농, 주민소득 배증계획, 산업구조조정, 문화 헤민공정
	허난 (河南)	계단식 수도세, 도농장벽, 생태건설, 스모그, 토지양도 규모경영,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자동차 구매제한		구이저우 (貴州)	개혁, 정부기능전환, 도농통합, 생태문명, 빈곤개발, 재세금융, 교육, 행정체제
	후베이 (湖北)	전면적 개혁심화, 스모그 관리, 수자원 오염 방지, 후베이 5대 목표,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협상민주제도 혁신		시장 (西藏)	농가-마트 직거래, 사회보장체제, 공공임대주택, 의료보건서비스
	산시 (山西)	생태문명건설, 신형도시화, 발전방식전환 종합개혁 시범구 건설, 의료, 교육, 삼농, 문화 개혁		닝샤 (寧夏)	공공임대주택, 오염배출비용, 3공경비, 완화된 2자녀 허용정책, 전면적 개혁심화, 공공서비스 균등화, 공립병원개혁
				간쑤 (甘肅)	환경관리, 실크로드 경제벨트, 카펫 가격제, 관광업강화, 빈곤 부양체제 혁신
				신장 (新疆)	정부자산관리, 자가용 연간조사, 지하 종합관로 건설, 인터넷구매 입법화, 식품안전 관리 감독, 특색 식음료

자료: 腾讯两会专题报道 2014年各地两会 <http://news.qq.com/zt2014/dflianghui/index.htm>, 검색일: 2014. 2. 20).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GDP 평가 폐지, 정보화 기반 구축, 토지제도 개혁, 자유무역시범구 및 실크로드 등 지역개발 이슈가 논의됨.
 - 허베이는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GDP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 하였음.
 - 일부 지역에서 정보서비스산업 및 정보소비 등과 관련된 기반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둥은 전역 무료 Wi-Fi 구축, 네이멍구는 스마트시티 건설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마련, 랴오닝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신장은 인터넷 구매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허난 등은 농촌의 토지경영권 양도 및 대규모 경영 등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하였으며, 대기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 구매제한 방침을 제기함.
 - 지역개발 이슈는 각 지역의 특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로, 2014년에 특히 자유무역시범구와 실크로드 개발 등이 화두가 됨.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이후, 2014년 연내에 시범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광둥, 톈진, 산둥, 헤이룽장 등에서 자유무역구 신청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간쑤, 산시, 칭하이 등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광시 등은 해상실크로드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임.

2. 주요경제지표 분석

- 2013년 중국 31개 지역(省) 중 15개 지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동부와 중부지역인 반면, 서부 및 동북 지역은 대부분 목표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고 랴오닝, 헤이룽장 등은 투자증가율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였음(표 2 참고).
 - 동부 10개 성 중 광둥(8.5%), 산둥(9.6%), 저장(8.2%), 상하이(7.7%), 푸젠(11%), 톈진(12.5%)과 중부 6개 성 중 후베이(10.1%), 후난(10.1%), 안후이(10.4%), 장시(10.1%) 등이 목표했던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보다 0.1~0.5%포인트 초과 달성하였음.
 - 한편 동북지역 중 헤이룽장(8%)과 지린(8.3%), 서부지역 중 네이멍구(9%)와 닝샤(10%) 등이 각각 성장률 목표보다 3%포인트, 3.7%포인트, 3%포인트, 2%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서부 12개 성 중 충칭(12.3%), 윈난(12.1%), 신장(11.1%), 간쑤(12.1%), 티벳(12.5%)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동북 3개 성이 모두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특히 헤이룽장, 랴오닝, 허베이, 산시 등 5개 지역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조차 각각 6%포인트, 4.9%포인트, 1.5%포인트, 1%포인트 이상 차이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음.
- 또한 대다수 지역에서 투자의 성장건인력이 상대적 높게 나타난 반면 상하이, 톈진, 베이징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견인하였음.

표 2. 중국 31개 지역의 2013년 경제성과와 2014년 목표

	GRDP (2013년, 억 위안)	경제(GRDP)성장률(%)			고정자산 투자액 (2013년, 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소비재 소매총액 (2013년, 억 위안)	소비증가율(%)			무역액 (2013년, 억 달러)	무역 증가율(%)			한국의 수출액 (2013년, 억 달러)	비중 (%)	한국의 FDI (누적, 억 달러)	2013년 (억 달러)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2014년 목표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2014년 목표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2014년 목표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2014년 목표				
광둥	62,164	8	8.5	8.5	22,900	16	18.3	18	25,500	12	12.2	13	10,900	5	10.9	1	436.0	24.3	24.8	5.2
장쑤	59,162	10	9.6	9	-	18	19.6	17	-	15	13.4	13	5,508	5	0.5	-	425.0	23.7	99.6	9.1
산둥	54,684	9.5	9.6	9	-	17	19.6	17	-	15	13.4	13	2,672	8	8.8	6	193.7	10.8	92.0	2.8
지장	37,568	8	8.2	8	-	-	18.1	-	-	-	11.8	-	-	-	10.8	-	69.3	3.9	15.7	1.2
허난	32,156	10	9	9	-	21	23.2	21	-	16	13.8	14	-	15	15.9	10(出)	53.2	3.0	0.9	0.1
허베이	28,301	9	8.5	8	22,630	20	18.5	17	10,350	15	13.0	13	546	5(出)	8	5	9.8	0.5	5.2	0.1
랴오닝	27,078	9.5	9	9	15,500	20	15.1	18	-	15	13.7	13.5	-	10	11.4	10	50.8	2.8	36.7	1.4
쓰촨	26,261	11	10	9	21,000	14	16.7	13	10,400	14	13.9	12	646	11	9.2	6	23.4	1.3	3.6②	1.1②
후베이	24,668	10	10.1	10	20,000	20	25.8	20	10,000	15	13.8	14	228(出)	5(出)	17.7(出)	10(出)	4.5	0.3	1.3	0.0
후난	24,502	10	10.1	10	18,381	23	26.1	23	8,941	15	13.8	13	252	12	14.7	12	3.2	0.2	5.7	0.0
푸젠	21,760	11	11	10.5	15,527	20	22.2	18	-	15	14.0	14	1,694	5	8.6	7	29.8	1.7	2.3	0.1
상하이	21,602	7.5	7.7	7.5	-	-	7.5	-	60,000	8	8.6	-	4,414	-	1.1	-	164.5	9.2	27.8	1.5
베이징	19,501	8	7.7	7.5	-	9	8.8	-	-	11	8.7	-	-	-	5.1	-	100.1	5.6	55.2	4.3
안후이	19,039	10	10.4	9.5	18,251	20	21.2	-	6,481	14	14.0	-	456	15	16.2	-	12.4	0.7	1.8	0.2
네이멍구	16,832	12	9	9	5,500	18	18.4	15	-	16	11.8	12	120	-	6.5	-	3.2	0.2	①	①
산시	16,045	12.5	11.1	11	15,800	25	24.1	25	-	16	13.8	15	102(出) 99(入)	10	18(出) 61(入)	106(出) 119(入)*	14.0	0.8	24.2	20.3
헤이룽장	14,383	11	8	8.5	-	30	24.0	26	-	15	13.8	13.5	389	8	3.4	8	0.7	0.0	3.4	0.1
광시	14,378	11	10.3	10	11,000	20	21.0	18	5,000	15	13.3	13	328	15	11.4	12	2.4	0.1	①	①
텐진	14,370	12	12.5	11	10,000	13	14.0	15	-	14	14.0	12	-	10	11.2	10	171.8	9.6	32.2	1.4
장시	14,339	10	10.1	10	12,451	20	20.0	18	4,551	15	13.6	13.5	282	10	12.2	7.5	2.7	0.2	3.8	0.5
지린	12,981	12	8.3	8	10,100	20	20.0	15	5,426	15	13.7	12	-	-	12.9	-	3.8	0.2	9.5	0.9
충칭	12,657	12	12.3	11	-	18	19.5	-	-	15	14.0	-	687	25	29.1	-	11.3	0.6	②	②
산시	12,602	10	9	9	10,000	22	22.0	20	-	15	14.0	14	-	-	5	-	2.8	0.2	2.0	0.1
윈난	11,721	12	12.1	11	10,000	23	27.4	24	-	18	14.0	13	258	16	22.9	13	1.7	0.1	0.3	0.0
신장	8,360	11	11.1	11	8,148	30	30.2	25	2,039	16	13.4	14	276	10	9.5	8	0.2	0.0	①	①
구이저우	8,007	14	12.5	12.5	-	30	31.9	25	-	18	14.0	14	-	20	20.6	20	0.0	0.0	0.2	0.0
간쑤	6,268	12	12.1	11	6,550	30	30.0	25	2,140	16	14.0	14	101	8	13	10	0.1	0.0	0.3	0.0
하이난	3,146	10	9.9	10	2,725	20	27.0	20	972	14	14.0	14	150	-	4.6	-	2.8	0.2	0.8	0.1
닝샤	2,565	12	10	10	2,680	20	27.0	20	610	16	12.5	13	-	8	44	-	0.2	0.0	①	①
칭하이	2,101	12	11	10.5	2,404	20	25.2	20	544	15	14.3	14	-	10	21.2	13	0.3	0.0	0.1	0.0
티벳	808	12	12.5	12	910	18	28.0	18	289	(300)	16.0	16	30	-	-	-	0.0	0.0	①	①
중국전체	569,000	7.5	7.7	7.5	-	18	19.6	17.5	234,380	14.5	13.1	14.5	40,000	-	7.6	7.5	1,794	100	452	51

주: *는 수출입 금액임.

① 자치구 5개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데이터는 5개 지역 합계로 발표되며, 2013년 투자규모는 306만 달러(전체의 0.06%)이고 누적기준 2.2억 달러(전체의 0.5%)임.

② 충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데이터는 쓰촨에 대한 투자액과 합산하여 발표됨.

자료: 중국 중앙 및 31개 성·사·자치구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31개 성 중 5개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를 달성한 반면,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5개에 불과하며 이 중 초과 달성 지역은 광둥과 상하이만 유일함.
 - 광둥(12.2%)과 상하이(8.6%)는 목표했던 소비증가율을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초과 달성함.
 - 안후이, 텐진, 하이난 모두 2013년 소비증가율 목표인 14%를 무난히 달성하였음.
- 인프라 구축 등으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높은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연해 일부 지역도 투자증가율이 여전히 소비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보임.
 - 구이저우, 신장, 간쑤 등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30% 이상인 반면,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은 13~14%에 불과하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등도 투자증가율이 18~20% 정도인 반면, 소비증가율은 12~13% 정도에 그침.
- 한편 베이징은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각각 8.8%와 8.7%로 비슷한 수준이고 텐진도 각각 14.1%와 14%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하이는 유일하게 투자증가율(7.5%)보다 소비증가율(8.6%)이 크게 높음.
- 해외수요 측면의 순수출 통계가 모두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무역 증가율이 목표치보다 높은 지역 대다수가 무역 규모가 작은 중서부 지역이고, 그중 일부는 수입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순수출의 성장전인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마젠탕(马建堂)은 2013년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 투자 및 순수출의 기여율이 각각 50%, 54.4%, -4.4%라고 발표함.⁵⁾
 - 산시성의 경우, 2013년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목표는 각각 20%와 10%였으나 실제 달성한 증가율은 각각 18%와 61%였음.

■ 한편 2013년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7.7%)과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한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초과하였으며, 각 지역의 GRDP 합계가 중국 전체 GDP보다 지나치게 과대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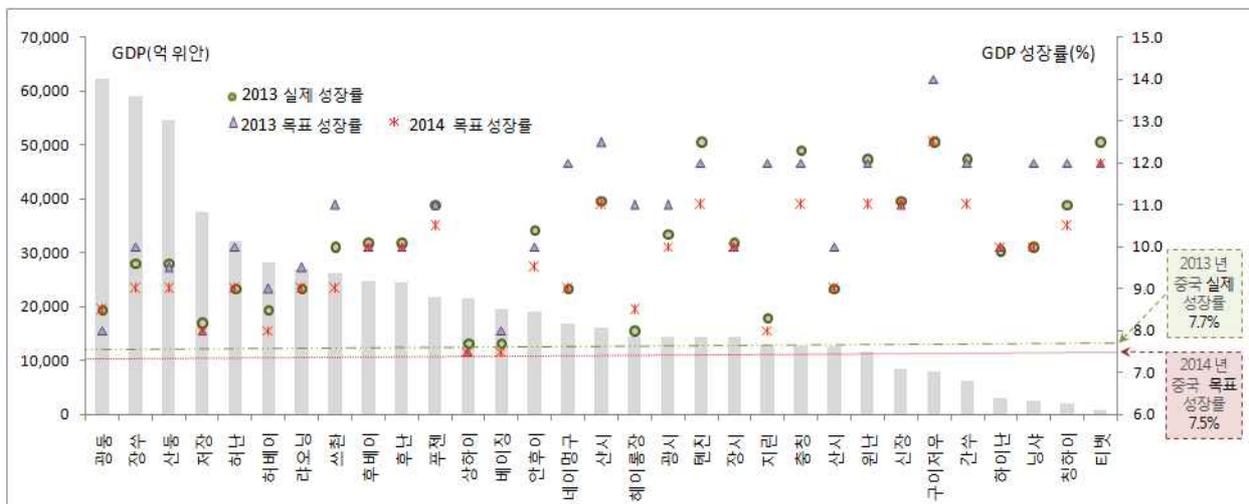
- 중국 31개 성 중 GRDP 성장률이 12%를 넘는 지역은 모두 6개로 이 중 텐진, 티벳, 구이저우가 12.5%로 가장 높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도 17개에 달함.
 - 반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베이징과 상하이는 중국 전체 성장률과 동일한 7.7%를 기록하였음.
- 또한 각 지역의 GRDP를 모두 합산한 규모는 약 63조 위안인 반면 중국 전체 GDP는 56조 9,000억 위안으로, 6조 위안(약 1조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중국 내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 혹은 한국의 2013년 경제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임.
 - 한 국가 내의 지역별 GRDP 합계와 국가 전체 GDP 간 불일치는 raw data, 통계방식 등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특징임.
- 이러한 중앙과 지방 간 경제 규모 및 성장률의 부정합성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raw data 및 통계방식의 차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실적을 여러 지역에서 중복 적용하거나 일부 하급 지방정부가 통계수치를 조작하기 때문에 발생함.⁶⁾

5) 「国家统计局局长马建堂：2013年最终消费对中国经济增长的贡献率为50%」(2014. 1. 20), 新华网(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01/20/c_119043005.htm, 검색일: 2014. 2. 28)

6) 「地方GDP“注水”为何愈演愈烈?」(2014. 1. 22). 财视网(<http://www.21fd.cn/a/fengmianbaodao/2014012265099.html>, 검색일: 2014. 3. 2)

- 가령 상하이에 본부가 있는 기업의 자회사가 구이저우에도 있는 경우, 두 지역 모두 관련 실적을 GRDP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중복되고 과대됨.
-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통계수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부 현(顯)정부⁷⁾가 서로 상의하여 동일한 GRDP를 발표한 사례가 있음.
- 물론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통계 데이터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성과 직접 보고, 다양한 거시지표와의 비교를 통한 조정, 통계수치 허위보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추진 중임.⁸⁾
- 지방정부의 기업 실적을 중복 계상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통계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90만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전기사용량, 발전량, 화물운송량, 조세 등 다양한 거시지표와의 정합성을 비교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수치를 조정하고 있음.

그림 1. 중국 지역별 경제규모 및 성장률(2013년, 2014년)



- 광둥은 투자(18%) 및 소비(13%) 증가율 목표 역시 모두 전년도 목표보다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높게 제시함.
- 올해 고정자산투자 및 소비재소매총액의 증가율 목표가 전년도 목표수준 이상인 지역은 각각 10개 및 2개로, 이는 대다수 지역이 투자 목표는 초과달성하고 소비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수준은 대부분 2013년 실제 달성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소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임.

- 대다수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3년 실제 성장률에서 $\pm 0.5\%$ 포인트 범위 내에 위치함.
- 한편 전년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12% 이상으로 높았던 텐진, 충칭, 윈난, 간쑤 등 일부 지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11%로 조정함.
- 2013년 투자증가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랴오닝, 산시, 헤이룽장 등이 2014년 투자증가율 목표를 전년도 실제 증가율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나 대다수 지역(22개 성)은 0~10%포인트까지 하향 조정함.
- 텐진만 유일하게 2013년 투자증가율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투자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음. 다만, 소비증가율 목표도 달성하였으나 2014년 목표는 오히려 2%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투자 중심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목표 하락은 지방정부의 용자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용자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함.
-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율이 지나치게 높고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므로,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형 성장 모델을 지속하기는 어려움.⁹⁾
- 반면 2014년 소비증가율 목표를 2013년도 실제 증가율 이상으로 조정한 지역은 14개이고 하향 조정한 지역은 12개로 비슷하며 그 조정 폭은 -2.0~1.2%포인트 수준임.
- 한편 베이징, 상하이, 저장, 안후이, 충칭은 투자와 소비의 2014년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3. 경제정책 방향 비교

■ 본고에서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정부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각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교해보고자 함.

■ 중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면적 개혁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2013년보다 전반적으로 개혁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각 지역에서 제시하는

9) 「(两会)固定资产投资预增17.5%低于预期, 增长靠外需」(2014. 3. 5), 大智慧阿思达克通讯社(<http://www.gw.com.cn/news/news/2014/0305/200000320289.shtml>, 검색일: 2014. 3. 17).

개혁 분야 및 내용, 우선순위 등에 차이가 존재함.

- 전면적 개혁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 허베이, 산둥, 상하이, 하이난, 안후이, 장시, 후난, 쓰촨 등으로 대부분 동부 연해 및 중부 지역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쓰촨이 유일함.
- 우선 상하이는 자유무역시범구 구성과 함께 전면적 개혁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여 인프라 투자 위주의 지역개발이 아닌 투자·무역·행정 관리상의 다양한 개혁실험을 추진하는 시범구 구축에 주력할 계획임.
 - o 자유무역시범구는 기존의 보세구 내에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대다수 지역에서 도시화 추진을 인프라 건설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식하여 관련 투자 증대를 계획하는 것과 대조적임.
- 베이징과 산둥은 발전 활력 및 동력 증대 등을 유발하는 정부기능, 경제제도, 시장 시스템, 조세 및 용자 체제, 농촌, 녹색발전 등의 개혁심화를 강조함.
- 장시는 다양한 소유제경제의 공동 발전 및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을, 하이난은 농촌, 국유자산, 조세·금융, 항무지개간의 등 분야 개혁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저장성은 정부행정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편 후난과 쓰촨 등 일부 내륙지역은 전면적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개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함.
- 이밖에 랴오닝, 헤이룽장, 구이저우는 2014년의 정책 과제와는 별도로 개혁 분야를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후베이는 모든 정책 과제를 ‘개혁·혁신을 통하여’ 추진할 것임을 명시함.
 - o 랴오닝은 농업경영 시스템, 호적제도, 국유기업, 공공사업, 시장 시스템 등 22개 개혁 분야를 제시하였고 헤이룽장은 농업, 소유제 구조, 연변지역 개발 및 개방 등 6대 개혁 분야를 제시함.
 - o 한편 구이저우는 자원세 개혁을 통한 자원배치 조정, 실물 경제, 도농통합발전, 생태문명건설, 빈곤해소 등 10대 개혁 과제를 별도로 제시함.
- 이밖에 장쑤와 푸젠은 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종합경쟁력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강조함.
- 이처럼 각 지방정부의 개혁 분야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혁의 의미에는 성장, 발전, 혁신, 구조조정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 한편 광둥, 지린을 비롯하여 충칭, 네이멍구, 산시 등 대다수 서부지역은 2014년에 경제성장 및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 일부지역은 빠른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광둥성은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도 목표보다 상향 조정한 유일한 지역으로, 정책 과제 역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제시함.
 - o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및 정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소비 진작, 이와 관련된 IT 인프라 강화 및 차세대 IT 산업 육성, 홍콩·마카오와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추진, 선전 첸하이(前海) 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 자유태환 실험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제 달성한 성장률 간 격차가 가장 컸던 지린성(4%포인트)은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반면, 개혁 심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전면내세우지 않음.
 - o 지린은 230개 중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를 15% 이상 증대할 계획이며, 정보소비 인프라 구축, 상업지구 및 비즈니스센터 건설 등과 함께 대형유통기업 및 도매시장 등을 육성할 방침임.
- 서부 12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산시, 신장, 간쑤 등은 빠른 발전 및 도약 발전을 전면내세우고 있음. 반면 개혁심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제시되지 않음.

거나 우선순위가 낮음.

- 쓰촨, 칭하이, 구이저우 등 일부 서부지역은 각각 개혁심화, 경제 업그레이드, 산업구조 조정 등을 가장 강조함.
- 한편 랴오닝, 헤이룽장 등 동북지역은 농업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외의 중점산업(공업) 발전을 차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을 강조함.
- 이 밖에 허난, 산시 등은 각각 정저우 공항경제 종합실험구, 전환발전 종합개혁시범구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표 3. 중국 중앙 및 31개 성(省)의 2014년 주요 정책 방향

지역	정책 과제	별도 제시
중국	①중점분야 개혁 심화(행정·재세·금융 체제 개혁, 다양한 소유제경제 활력 제고) ②수준높은 대외 개방 ③내수의 경제건인작용 증대 ④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 촉진 ⑤사람이 핵심인 신형도시화 추진 ⑥혁신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과학기술체제 개혁, 산업구조조정) ⑦교육, 보건, 문화 등 사회사업 강화 ⑧민생개선·보장 ⑨생태문명 건설	
베이징	①발전활력 자극, 전면적인 개혁심화 ②도시발전 난제 해결, 지속발전 수준 제고 ③혁신구동 강화, 경제구조조정 추진 ④신형도시화 추진, 도농발전 일체화 우선 추진 ⑤민생개선, 복지증진 ⑥정밀관리 강화, 도시서비스 수준 제고	공산당 교육, 정부개혁
텐진	①아름다운 텐진 건설 가속화(산업고도화, 오염방지, 도시품질 제고) ②전면적 개혁심화, 개방확대(빈하이신구 종합개혁, 정부개혁, 국유기업 및 금융 개혁, 도농일체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등) ③사회사업·민생개선 촉진	
허베이	①전면적 개혁심화 견지 ②산업고조조정 ③경제지속발전 추진 ④환경보호, 생태건설 적극 추진 ⑤특색 신형도시화 추진 ⑥민생강화	
산둥	①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정부행정, 농촌, 기업소유제, 시장시스템, 재세 등) ②산업구조 고도화 ③사회사업 및 민생보장 ④정부개혁	
상하이	①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조성,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②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 발전, 산업구조조정 ③과학기술 혁신, 지해도시 및 인재도시 구축 ④민생개선 ⑤문화산업/사업 발전 촉진 도시·사회 관리 강화 ⑦도농통합발전 역량 강화 ⑧자원절약·환경보호 강화	
장쑤	①산업구조조정 심화, 종합경쟁력 제고 ②경제효율 제고 통한 지속적인 발전 촉진 ③혁신발전 강화 ④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⑤신형도시화 및 도농일체화 추진 ⑥생태환경 개선 ⑦개방기회 확대, 개방형 경제 우위 증대 ⑧새로운 지역발전 배치, 조화발전 제고 ⑨문화발전 촉진 ⑩민생개선	서비스형 정부 건설
저장	①정부기능 전환 등 정부개혁 가속화 ②생태환경보호기제 혁신 ③산업구조조정 통한 경제고도화 ④도농체제개혁, 신형도시화 추진 ⑤새로운 개방형 경제 구축, 개방을 통한 개혁·발전·전환 추진 ⑥사회·문화사업 혁신, 복지증진 ⑦사회관리방식 혁신 ⑧민생개선	
푸젠	①산업경쟁력 강화 ②농업현대화 수준 제고 ③신형도시화 추진 ④적극적인 개방 확대 ⑤대만과의 협력 심화 ⑥민생안전망 구축 ⑦생태문명 건설 추진	
광둥	①지속적인 경제발전 촉진 ②경제체제개혁 중점 추진 ③혁신 광둥 구축 ④산업고도화 추진 ⑤대외 개방 수준 제고 ⑥농업·농촌·농민 사업 강화 ⑦신형도시화 적극 추진 ⑧역내 도농 조화발전 제고 ⑨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 ⑩민생개선 중심의 사회건설 강화	
하이난	①중점 분야 개혁심화(농촌, 국유기업, 재세금융, 투용자체제, 교육문화, 의약보건, 개방 등) ②지속적 경제발전(안정적 빠른 성장, 산업고도화, 도농통합발전, 신형도시화, 생태시범구 구축, 민생개선, 사회관리 혁신 등) ③서비스형 정부 건설	
랴오닝	①현(縣)지역 경제 및 농업 발전 ②5대 공업 공정 심화 실시 ③과학기술혁신 추진 ④지역경제와 서비스업 발전 ⑤대외개방 확대 ⑥3대 지역 발전전략 심화 ⑦생태환경 건설 ⑧인프라 건설 가속화 ⑨민생개선 ⑩민주법제와 정부개혁 강화	22개 개혁 분야
지린	①내수확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촉진 강화 ②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 ③현대농업 발전 ④대외개방 제고 ⑤신형도시화 적극 추진 ⑥에너지절약·오염감축 및 환경보호 강화 ⑦민생개선 ⑧사회사업발전과 사회안정 유지	정부기능 전환
헤이룽장	①현대 농업 발전 가속화 ②중점산업 발전 ③서비스업 발전 ④신형도시화 적극 추진 ⑤러시아 중심의 대외경협 강화	민생, 6대 개혁 분야

표 3. 계속

지역	정책 과제	별도 제시
안후이	①중점 분야 개혁 추진(국유기업, 농촌, 재세체제, 금융체제, 행정체제, 사회사업) ②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 ③산업고도화 ④신형도시화 추진 ⑤농업현대화 가속화 ⑥대외개방수준 제고 ⑦문화번영 발전 적극 추진 ⑧생태환경 보호 강화 ⑨민생개선 ⑩사회의 조화안정 촉진	
장시	①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 발전동력 증대 ②유효수요 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추진 ③농업·농촌 발전기반 강화 ④혁신추진,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⑤지역발전전략 심화 ⑥대내외 경제개방 확대 ⑦사람중심의 도시화 추진 ⑧생태환경 보호 강화 ⑨민생사업 심화 ⑩사회사업·사회안정 촉진	
허난	①정저우 공항경제종합실험구 구축 전면적 추진 ②공업 강화, 선진제조업 가속 발전 ③서비스업 빠른 성장 ④우위 농업 발전 견지 ⑤신형도시화 과학 발전, 도농 통합발전 ⑥발전기반 강화 ⑦개혁심화, 개방확대 ⑧문화발전 ⑨녹색·순환·저탄소 발전 ⑩민생개선, 사회관리 혁신	
후난	①개혁개방 목표 전면 추진 ②안정적 경제발전 촉진 ③인프라 건설 강화 ④에너지절약·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⑤신형도시화 적극 추진 ⑥민생개선 ⑦공공서비스 및 사회사업 발전 추진⑧	
후베이	①시장주체 강화, 시장메커니즘 구축 ②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 ③내수확대, 안정적 성장, 내생동력 증대 ④경제구조조정, 발전방식전환, 산업고도화 ⑤다수 도시군 역량 강화, 지역조화발전 촉진 ⑥환경보호 및 녹색발전 ⑦사회사업 및 민생복지 확대 ⑧정부기능 전환, 관리능력 제고, 청렴정부	모든 과제를 “개혁혁신”으로 추진
산시	①전환발전 종합개혁시범구 전력 추진 ②경제의 안정적 발전 ③경제발전방식 전환 ④삼농(농업, 농촌, 농민) 건설 강화 ⑤특색 신형도시화 추진 ⑥문화개혁 발전 ⑦민생·사회건설 강화 ⑧생태문명 건설 심화 ⑨생산 안전	
충칭	①안정적 경제발전 촉진 ②산업고도화 ③농업발전, 삼협 후속작업 추진 ④신형도시화 ⑤경제체제 개혁심화 ⑥대내외 개방 확대 ⑦민생개선 ⑧사회관리체제 혁신 ⑨ 생태문명 건설	정부 개혁
네이멍구	①유효수요 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②구조고도화, 발전방식전환 ③농목업 발전수준 제고 ④경제체제개혁 통한 개혁개방 심화, 발전활력·동력 강화 ⑤민생개선, 생활수준 제고 ⑥생태환경 보호 강화 ⑦신형도시화 및 도농통합발전 추진 ⑧민족문화구 구축 가속 ⑨사회관리체제 혁신 ⑩정부기능 전환	
쓰촨	①경제체제 개혁심화, 개방 확대 ②혁신발전, 산업고도화 ③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 ④도농통합발전, 신형도시화 발전 ⑤안정적 투자, 소비수요 확대 ⑥다수 도시군 발전, 지역조화발전 ⑦민생개선 ⑧사회관리 강화	
산시	①중점분야 성장 통한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②현대 농업원구 건설,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 ③新지주산업 육성 통한 경제고도화 ④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⑤민생개선 ⑥생태환경 건설 ⑦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으로 내륙개발 가속화 ⑧중점분야 개혁 심화	정부 개혁
광시	①개혁혁신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증대 ②공업 중심의 산업체계 구축 ③교통 중심의 인프라 구축 강화 ④중점 분야에 투자의 안정적 증대 ⑤북부만경제구 등 지역개발 및 지역조화발전 촉진 ⑥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건설 ⑦아세안 등 개방협력 강화 ⑧민생개선, 사회사업 집중 발전	법치정부, 서비스 정부 건설
칭하이	①질개선 및 효율증대 통한 경제업그레이드 ②환경, 생태 강화 ③민생개선 ④개혁개방 심화, 활력 있는 발전환경 창조 ⑤정부 관리능력 강화	
윈난	①유효수요 확대, 지속적 경제성장 ②삼농사업 강화 ③산업구조조정, 발전방식 전환 ④인프라구축 강화 ⑤신형도시화, 조화발전 ⑥접경지역 중심 개방 강화 ⑦민생개선 ⑧생태문명 건설 ⑨민주법치 강화 ⑩법치행정, 서비스형 정부 건설	
구이저우	①산업구조조정 ②도시화 수준 제고 ③중점발전 플랫폼 구축 ④농업발전 ⑤특색 농촌 발전계획 실시 ⑥투자확대, 인프라 구축 심화 ⑦대외개방 ⑧환경관리·생태보호 강화 ⑨교육·과학기술사업 발전 ⑩민생개선, 사회관리 강화	10대 개혁 분야 제시
티벳	①농목업 및 인프라 기반 구축 ②특색산업 및 생태문명 추진 ③민생 및 공공서비스 개선 ④개혁개방 및 지원 장려 ⑤과학기술 및 인재 강화 ⑥민족단결 및 사회안정 공고화	정부개혁
닝샤	①각 분야 개혁으로 발전동력 증대 ②산업고도화 통한 경제고도화 ③공간발전전략 및 도농일체화 추진 ④사회사업 발전,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⑤민생계획 추진 ⑥정부서비스 수준 제고	
간쑤	①경제발전방식 전환 통한 도약발전 ②프로젝트 추진으로 발전능력 증대 ③빈곤해소 사업 강화, 빈곤계층 소득증대 ④신형도시화·도농일체화 추진 ⑤화하(华夏)문명계승 혁신구 구축 통한 문화발전 ⑥민생개선 ⑦생태안전 종합시험구 주축으로 환경보호 역량 강화 ⑧전면적 체제혁신, 개혁개방 확대	
신장	①경제체제개혁 심화 통한 빠른 경제발전 ②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중심의 전방위 개방 ③문화체제 개혁 통한 현대문화 발전 ④사람중심의 사회사업 추진 ⑤생태환경 개혁 ⑥민주입법 행정 능력 제고	

자료: 중국 중앙 및 31개 상·자치구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

■ 소비보조금 등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다양한 서비스 소비 육성,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대출·신용소비 정책 및 유급휴가제도 강화,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이 중시되고 농촌소비 육성, 소비금융 발전이 일부 지역에서 강조되는 등 소비증대 여건이 장기간에 걸쳐 조성될 것임.

- 농촌주민에 대한 가전구매 보조금(家电下乡) 및 전자재구매 보조금(建材下乡), 신규 자동차 교체 보조금(汽车以旧换新) 등 다양한 소비보조금 정책이 2013년에 모두 종결되고 주민소득 증대, 사회보장 제고 등 가장 근본적인 소비증진책이 지속되고 있음.
- 대다수 지역은 통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스마트 전자기기,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소비지출 등을 의미하는 정보소비를 육성·확대할 계획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네이멍구, 지린 지역에서는 녹색(에너지절약·환경보호)소비, 관광·문화·레저·건강·가사 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영역 육성을 강조함.
 - 특히 지린, 광둥, 신장은 정보소비 시범도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정보소비 촉진을 위해 광둥, 허베이, 후베이, 허난, 장시, 쓰촨, 지린 등은 광대역 네트워크 및 4G망을 구축하고 3망(방송·통신·인터넷) 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 실험을 지역별로 시행 중임.
 - 광둥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중점기업 및 업종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며, 허난성은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를 이미 운영 중임.
 - 신장은 정보기술응용 시범지 구축과 정보화 행동계획 등을, 허베이는 전자상거래 3개년 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며 칭하이는 정보산업에 1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허베이, 충칭, 네이멍구, 장시, 윈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책(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및 대출·신용소비 정책을 강조하였고 광둥, 허베이, 충칭, 윈난 등에서는 유급휴가제도 실시 강화를 제시하였음.
- 충칭, 윈난, 산시 등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임금지급 보장, 임금집단 협상 등 제도의 완비를 강조함.
- 한편 쓰촨, 지린, 장시, 광시 등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농촌소비시장 발굴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쓰촨은 농촌에 상업시설 증대 및 편리한 상권 형성을, 지린은 비즈니스센터 및 직영점 구축을, 장시는 상업유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 유통업 발전과 유통주체 육성 추진(네이멍구), 다양한 업태의 발전과 대형유통기업 및 도매시장 육성(지린), 상업이 집적된 상권 조성(안후이), 편리하고 안전한 소비유통시스템 구축(쓰촨) 등이 소비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조됨.
- 한편 충칭과 윈난은 자동차 소비 확대와 부동산의 안정적 소비를, 칭하이는 신에너지자동차의 소비 확대를 강조함.

■ 중앙정부가 강조한 신형도시화가 29개 성에서 언급되었으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도시군 건설 중심의 '토지의 도시화'이며,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인구의 도시화'를 위해 필요한 호적제도 개혁을 함께 명시한 지역은 광둥, 허베이, 닝샤, 장시 등 일부에 불과함.

- 2013년 말 개최된 중앙 18기 3중 전회 및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 등에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및 사람 중심의 도시화를 골자로 하는 신형도시화 건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호적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종전까지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대다수의 도시화 사업은 역내 혹은 주변지역과 함께 거대 도시군을 구축·확대 하는 '토지의 도시화'로, 도시공간의 주체인 인간이 소외된 인프라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이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가 집적된 도시군은 인구와 산업의 집적 발전에 유리하고, 공공서비스 비용이 절감되며 기초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시화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왔음.
- 그러나 각 지역이 도시군 규모의 확대만을 강조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제시한 도시군의 인구규모 총합이 무려 20억 명이 넘는 등(중국 전체인구가 13억 명)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남발되고 도시의 기능이나 역할의 차별성, 도시민 자격 부여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은 등한시되어 왔음.
- 허베이는 도시군 규모 확대만을 추구하던 종전의 확장형 계획을 점차 편의성 및 합리적 공간배치 등을 중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 발전시킬 것을 명시함.
- 또한 베이징과 톈진 2개 특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허베이의 스좌장(石家庄), 탕산(唐山) 2개 도시를 외곽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도시군 발전계획을 도시기능에 맞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추진할 것을 강조함.
- 한편 광둥은 역내의 일부 시(市)와 현(縣)을 선별하여 신형도시화 개혁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금조달 측면에서 시정(市政)채권 발행 등 정책금융의 운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¹⁰⁾
- 닝샤는 각 도시의 특화기능을 살리는 도시계획을 제시하였고, 현(縣)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호적 제한을 폐지하고 추후 지급시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역내 통일된 거주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¹¹⁾
- 성도인 인촨(银川)은 개방과 현대화의 도시로, 스주이산(石嘴山)은 공업도시로, 우중(吴忠)은 고향마을 등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며 2014년 농촌주민 90만 명의 도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허베이 역시 현(縣) 지역의 호적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스좌장, 탕산, 바오딩(保定), 한단(邯鄲)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호적 제한 폐지 조건을 검토할 계획임.
- 반면 베이징, 상하이 등 상주인구 2,000만 명 이상의 특대도시에는 유입인구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도시화 사업에 포함시켰으며 도시병 등 도시화의 부작용 해결을 강조하였음.¹²⁾
- 한편 간쑤, 산시, 닝샤 등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광시 등은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강조함.
- 이 밖에 산지가 많은 내륙지역 중 구이저우는 산지 특색의 신형도시화를, 윈난은 산상도시 건설 등을 제시하였고 노후공업지역인 헤이룽장은 공업화가 견인하는 도시화를, 석탄산지인 산시는 광구(鑛口)도시화를 추진할 계획임.

■ 중앙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기준 및 해당 지역민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베이징, 후베이 등 일부 지역은 환경 관련 지방법규를 재정비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한 반면, 일부 중서부 내륙 및 동북 지역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정책 과제가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음.

- 베이징은 이번 양회에서 통과시킨 「베이징 대기오염방지 조례」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2%)뿐만 아니라 수자원 소비(4%), 이산화탄소 배출량(2.5%, 미세먼지 농도 연 5%) 등 다양한 환경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10) 「地方两会频现新型城镇化等三大热词」(2014. 1. 20), 地产中国网(<http://www.21fd.cn/a/fengmianbaodao/2014012265099.html>, 검색일: 2014. 2. 23)

11) 「近半省级地方两会召开 新型城镇化等改革路径渐明晰」(2014. 1. 16), 中国新闻网(<http://www.chinanews.com/gn/2014/01-16/5741900.shtml>, 검색일: 2014. 2. 25)

12) 「地方两会 聚焦新型城镇化」(2014. 1. 30), 人民网(<http://news.163.com/14/0130/08/9JQU2QDI00014JB6.html>, 검색일: 2014. 2. 27)

- 이와 함께 엄격한 환경보호 관리감독제도 구축, 자원의 유상사용제도 완비, 생태보호구에 대한 지원 강화, 식수원지 및 환경기준 초과 지역 등에 대한 개발제한 조치 강화, 이산화탄소 흡수원(carbon sink) 거래 시범지역 확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자본의 환경보호 분야 투입 등을 강조하였음.
- 후베이성 역시 이번 양회기간 동안 「후베이성 수자원 오염방지 조례」를 표결·통과시켰으며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장강(長江)이 관통하여 지나는 후베이성은 성도인 우한에 100개의 호수가, 후베이성 전체에 1,000개 호수가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수자원이 풍부한 내륙지역으로, 수자원 오염 개선이 환경보호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임.
- 또한 허베이, 산시와 같이 석탄산업 등이 밀집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일부는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COD·이산화황·암모니아질소·산화질소 배출량, 미세먼지 농도 및 용수량 등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표 4 참고).
- 반면 산둥, 장쑤, 광둥, 후베이, 허난, 쓰촨 등 많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목표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이난, 랴오닝, 티벳 등은 환경 관련 목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표 4. 중국 지역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목표(2014년)

지역	환경보호 목표	지역	환경보호 목표
중국	- 오염방지 강화: 스모그 빈번한 특대도시와 지역 중심으로 PM2.5 및 PM10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심화, 낙후 오염처리시설 폐기 및 개보수 - 에너지절약: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9% 이상 감축, 이산화황 및 COD 배출량 모두 2% 감축 등	헤이룽장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5% 감축
		안후이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장시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허난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베이징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 감축 - 수자원 소비 4% 절약 -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이상 감축 - 대기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5% 감축	후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 감축
		후베이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톈진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5% 감축 -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오염배출 감축목표 달성	산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5% 감축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7% 감축 - 이산화황, COD, 암모니아질소, 산화질소 배출량 모두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 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 0.5% 감축 - 공업 부가가치 단위당 용수량 5.5% 절약
허베이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 감축 - COD,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배출량을 각각 1.2%, 2.7%, 1.2%, 5.6% 감축 - 미세먼지(PM2.5) 농도 4% 감축		충칭
산둥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네이멍구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 2.2% 감축
상하이	- 환경보호 관련 투자 비중이 GDP의 3% 유지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감축 - 오염물질 배출 축소에 대한 중앙정부 목표 달성	쓰촨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산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2% 이상 감축 - 이산화황, COD, 암모니아질소, 산화질소 배출량 각각 0.5%, 1.5%, 2%, 6% 감축
장쑤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광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8% 감축
저장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COD·이산화황·암모니아질소·산화질소 배출량 등 에너지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혹은 초과달성	칭하이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 이상 감축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푸젠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COD·이산화황·암모니아질소·산화질소 배출량 등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윈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2% 이상 감축
		구이저우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5% 감축
광둥	- 에너지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티벳	- 목표 미제시
하이난	- 목표 미제시	닝샤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5% 감축
랴오닝	- 목표 미제시		

표 4. 계속

지역	환경보호 목표	지역	환경보호 목표
지린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 감축 - COD, 암모니아질소, 산화질소, 이산화황 배출량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간쑤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신장	- 에너지 절약오염감축 관련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자료: 중국 중앙 및 31개 상·시·자치구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

■ 2014년에는 특히 정부의 행정심사목록 축소 및 권한이양 등 정부기능의 전환과 공무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정부행정 부문의 개혁이 강조되었으나, 지역별로 이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점분야가 상이하.

- 정부행정 체제의 개혁은 중앙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중점분야 개혁 심화’의 첫 소과제이며 베이징, 저장, 산둥 등도 이를 가장 강조한 반면 후베이, 네이멍구, 윈난, 닝샤, 신장 등 일부 내륙지역은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음.
- 저장과 후베이 모두 정부권한목록 제도 및 권한행사 규범화를 추진하고 행정관리 및 심사감독을 강화함. 특히 저장은 권력운용 절차를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고, 기업의 자금 수급에 성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막고 기업으로부터 행정사업비를 갈취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할 계획임.¹³⁾
- 베이징은 행정기구의 편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공무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며 허베이는 정부조직구조 업그레이드, 시현(市縣)급 정부기구 개혁, 성 및 시현 정부기구의 개혁임무 완성 및 표준화 추진 등을 강조함.
- 한편 상하이와 심시항목 및 행정사업성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관련 평가를 표준화하는 등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할 방침임.
 - o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이는 이미 1,193개 심사항목을 폐지했으며 산업항목의 심사기한도 1/3로 축소시킬 계획이며 심사항목의 표준화 관리를 전면 시행하여 이미 200여 개 행정심사항목은 표준화 관리가 시행됨.
- 광둥은 행정심사, 재정 예·결산, 3공경비 등 주요 분야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특히 투명한 경비 사용을 위한 첫 단계로 공개업무를 강조함.
- 한편 산시는 지역민 대표가 정부 활동을 경험하고 대학생이 정부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역민의 정부체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며, 랴오닝은 정부 각 부문의 5,000여 개 행정직권을 시정부 및 개발구 혹은 사회단체에 이양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할 계획임.
- 민생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3공경비 및 행정경비 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올해 저장성은 관련 예산을 30% 축소할 방침이며 베이징은 12%, 상하이는 11.2%, 광둥·후베이·산시 등은 10% 이상, 허베이는 6%, 장쑤·산둥·닝샤·칭하이는 약 5% 정도 감축할 계획임.¹⁴⁾
 - o 중앙정부는 3공경비와 행정경비를 매년 5%씩 감축할 것을 제시함.
- 많은 지역에서 3공경비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한 반면 산시, 푸젠, 쓰촨, 톈진, 충칭, 칭하이 등 일부 지역은 감축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엄격한 관리만을 강조하는 데 그침.

13) 「改革, 成为地方两会最热词 (地方两会看改革)」(2014. 1. 29), 人民网(<http://news.163.com/14/0129/09/9JODDT2M00014JB6.html>, 검색일: 2014. 2. 27).

14) 「2014地方两会热词盘点:促改革 调增速 战雾霾」(2014. 1. 27), 新华网(<http://news.cntv.cn/2014/01/27/ARTI1390823993573423.shtml>, 검색일: 2014. 2. 23).

4. 평가 및 시사점

■ 2014년 중국의 대다수 지역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혁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걸쳐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베이징과 상하이 등은 투자 및 소비 증가율 등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기준 강화 및 목표 구체화, 민생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기능의 전환 및 도시 수준 제고 등 중앙정부가 강조한 구조조정 중심의 개혁을 실천하고 있음.
- 반면 12·5 계획 및 13·5 계획 기간을 ‘성장의 황금기’로 인식하고 있는 다수의 내륙지역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주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산업기반 조성 등에 대한 투자 확대임.
 - 또한 일부 지역의 개혁심화 관련 정책과제는 그 분야 및 내용이 모호하거나, 개혁내용이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 더욱 편중되어 있음.
- 최근 중앙정부가 양적성장 지양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지역간 경쟁과 GDP 부풀리기 등에 익숙하던 지방정부의 인식전환 및 정책실천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관건임.
 - 지금까지 지방관료에 대한 고과평가에서 GDP 성장 실적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부풀리려는 유인이 남아 있으며, 설사 향후 그 중요도가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평가항목 중 하나이고, 지역간 경제성장에 대한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성장지향성이 전환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임.
- 또한 중앙정부 역시 내수확대의 한 축으로써 중서부 내륙 및 동북 등 저발전지역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이천지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중앙 차원에서도 중국 전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내륙지역의 빠른 성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개혁방식의 핵심이 정부기능의 전환과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인 만큼 경쟁력이 약하고 부실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개혁의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및 실천능력 등에 따라 개혁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금융 시스템, 국유기업, 산업구조, 대외개방 등 중요한 경제 각 분야의 개혁에 있어 다양한 시장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개입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이 전체적인 시장질서 확립과 사회보장 및 공익사업 부문 등에 집중되도록 함.
-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분야의 부실기업, 생산과잉업종 및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임.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국 기업의 디폴트 역시 시장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선택이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선별적 디폴트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시장개입 정도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성장 지향성이

강한 지역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기업과의 결탁 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함.

- 정부주도의 성장이 구조조정보다 우선시되는 지역은 빠른 성장효과를 위하여 중점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앞서 해당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

■ 중국의 도시화 추진에 따른 각 지역의 개발수요 증대 관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개발사업 지속여부의 불투명성 증가와 한국 자유경제구역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장 진출은 한국의 건설, IT, 환경 분야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반 확대 및 한국형 도시의 수출 기회 증대에 매우 긍정적임.
- 다만 중국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개별적인 참여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이나 조달시장 분야의 개방 협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와 함께 유관 부서 및 현지 기업과의 교류 기회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점개발 중인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범구 등을 조성하여 개혁개방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대 및 규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가령 허난성은 정저우 항공경제종합시험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국제 전자무역서비스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도시 내 보세물류센터에 등록된 플랫폼 업체를 통한 경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범도시 사업이 향후 충칭, 항저우, 닝보 등에서도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 변화에 맞는 선제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신형도시화 정책 추진 및 지방부채에 대한 중앙의 관리강화 방침 등이 강조됨에 따라 개발규모의 확장만을 추구하던 일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러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상품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둥성의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중경협단지를 비롯하여 추가적인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무역시범구 등은 새만금 차이나밸리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과 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유치, 개발 콘셉트 등에서 경쟁이 불가피함.

■ 2014년 지방 양회의 최대 이슈였던 환경오염 문제와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소비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각 지역의 오염산업 도태와 환경산업 발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별로 환경오염 분야 및 정도, 개선의지 등에 차이가 있어 관련 업종, 구조조정 강도, 신규시장 확대 정도가 상이할 전망이다.
- 가령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한 대기오염방지 지방조례를 재정비한 반면 허난성에서는 자동차 구매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

- 한편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인 화북 및 장삼각 지역과 수질오염 해소에 적극적인 주삼각 및 장삼각 지역에 대한 오염측정 장비, 정화물질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시장규모 및 특징은 서로 상이함.
-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제시한 환경기준 목표를 과도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무리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14년에는 산업고도화 측면에서 공업화-정보화의 융합 발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술과 소비수요 확대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정보소비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 각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됨.
- 이러한 정보화 추세가 각 지역의 교육, 의료, 도시관리·운영 등에 파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시장기회를 선점해야 함. **KIEP**

부록

부록 표.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산업고도화 계획

지역	중점육성 및 구조조정 업종	지역	중점육성 및 구조조정 업종
베이징	-저부가가치 산업의 무질서한 발전 통제 -문화창의 산업(다양한 기능구, 예술구, 문화보세구, 디지털출판기지 등 구축), 관광레저를 동반하는 녹색산업 -고급제조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보존 스포츠 등 -금융·정보·비즈니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모바일인터넷·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 (정보소비, 전자상거래 등), 관광산업	상하이	-문화창의 산업 비중 및 경쟁력 제고, 국유문화기업 개혁 심화, 문화와 금융·과학기술·교육·체육·관광 등 융합발전 촉진, 문화창의 산업원의 서비스 기능 제고 -시청각, 애니메이션, 디지털출판, 창의산업 -집적회로산업사슬 보세관리 모델 개혁 심화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고도화
	-녹색에너지, 중형설비 등 10대 고급제조업 -고부가가치 장비제조, 차세대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산업 -자원순환이용, 수처리, 전기자동차 등 환경보호 산업 -금융,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전자상거래, 창의산업, 정보 소비, 서비스아웃소싱, 분부경제 , 건강서비스 등 -도시형 농업, 특색 문화산업		-10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기술·의약,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 차세대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하이엔드 장비제조,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그리드, 해양공정장비산업) -금융, 물류, 서비스 아웃소싱 등 고급 서비스업 -디지털 제조·서비스업, 전자상거래 핵심기업 육성 -철강, 시멘트, 판유리, 선박 등 중심으로 자원가격 차별화 추진 및 과잉생산 해소 -원예·대규모 목축 및 특색 수산업 발전, 고효율 중도 산업 및 농산품가공유통업 -문화산업(핵심기업 육성), 문화기업 M&A·상장 유도
톈진	-철강·시멘트·석탄·판유리 등 생산 감축, 과잉생산능력 해소, 철강·시멘트·유리 산업 구조조정 -잠재력 큰 100개 선두기업 선발·지지 통해 신산업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소재, 고부가장비제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발전, 해양산업, 공간정보기술산업 -목축·채소·과일 등 3대 우위 농업 발전, 식품가공업 -물류·연구개발·클라우드 컴퓨팅·사물인터넷 등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창의·애니메이션·문화오락·비즈니스유통·건강양로 등 생활서비스업 , 관광업	장쑤	-고효율 생태농업, 순환농업, 농업구조조정, 대규모 영농-전략적 신흥산업, 하이테크산업, 대형산업 발전 -정보, 환경보호, 건강, 관광, 금융, 고부가가치 장비제조 등 산업발전계획 연구 제정 -선도기업, 브랜드기업, 하이테크기업 육성 -문화산업 규모화 추진
허베이	-특색농업, 중도산업 -생산과잉(철강·시멘트·조선·화학·선박 등) 해소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제약, 차세대정보기술, 고부가가치 장비제조업, 해양산업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석유장비, 집적회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금융·철도·민항 교육·의료·양로·건강 등 서비스 장려 -전자상거래·체인경영·물류 등 산업태, 서비스 무역·서비스아웃소싱 육성 , 문업창의 산업	저장	- 고효율 생태농업, 순환농업 , 농업구조조정, 대규모 영농-전략적 신흥산업, 하이테크산업, 대형산업 발전 -정보, 환경보호, 건강, 관광, 금융, 고부가가치 장비제조 등 산업발전계획 연구 제정 -선도기업, 브랜드기업, 하이테크기업 육성 -문화산업 규모화 추진
산둥	-정밀화학 발전, 지주산업(장비제조, 자동차, 야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강화 -비즈니스유통, 물류, 금융, 온천관광·농촌관광 등 관광업 -과학기술 소프트웨어·임대 등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 정보, 건강, 양로 등 서비스업	광둥	-금융, 물류, 문화창의, 공업설계 등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 및 비중 제고 -철도교통업,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등 중대형 제조업 -고부가가치 신형전자정보,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위성서비스·모바일인터넷 등 차세대정보기술 및 서비스산업 -3D 인쇄기술 및 응용산업 발전, 3망 융합 산업태 육성 -해양경제 발전,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
랴오닝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품가공의 3대 지주산업 중심으로 전통산업 고도화 추진 -의약·건강, 장비제조, 건설, 관광을 신지주산업 으로 육성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문화 등 신산업 육성 -인삼, 광천수, 오일세일 등 우위자원 개발 -철강·시멘트·판유리 등 중점산업의 개선, 도태, 인수합병, 과잉생산해소 등 추진 -물류, 문화관광, 건강서비스 등 서비스업 -광전자, 화학재료, 바이오화학, 정밀화학 4대 신흥산업	안후이	-전자정보, 스마트장비제조 ,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90개 신형공업화산업 시범기지 건설 -철강, 시멘트, 판유리, 선박업 등의 생산과잉 해소 -비즈니스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문화창의, 서비스아웃소싱, 양로 등 서비스업 -농산품가공의 정밀화, 브랜드화, 집적화 추진 -출판, 방송 영상, 예술 공연 등 문화산업 발전
지린	-전자정보, 자동차, 의약, 선박, 화학, 소재, 디지털 선반 -3D인쇄, 로봇, 항공 , 바이오의약,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허난	-항공, 전자정보, 정밀기계, 바이오의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스마트폰 제조 발전 -전자정보, 장비제조, 자동차 및 부품, 고급가구, 식품, 의류·잡화 등 고성장성 제조업 - 바이오의약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야금, 전자재, 화학, 방직, 에너지 등 전통산업 개혁 -차세대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충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해소 -정보화 통한 전통산업(항공, 오토바이, 전자재 등) 고도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육성 -전시박람회, 물류, 전자상거래, 컨설팅, 회계심사, 법률서비스, 문화창의 등 적극 발전 -관광 인프라 구축, 생태·장강삼협·레저농촌관광 등 관광업 -민영기업의 신흥산업(고급제조, 보세물류,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등) 발전 지지 -양강신구(两江新区)에 자동차 전자정보·고부가 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산업 강화, 전자상거래 정보소비 등 신흥산업 -출판기지, 국제영화단지, 예술산업단지 등 문화기지 건설 및 문화기업 강화, 노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공업설계, 교육훈련,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양로·가사 서비스 등 신흥 서비스업 -농업의 산업화: 육우·육양 산업, 유제품 산업화 규모 확대, 화분·묘목·과수림 등 고효율 특색농산물 생산 -미디어, 공연·예술 오락 등 전통문화산업과 문화창의 애니메이션·모바일메체 등 신흥문화산업 발전
<p>쓰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보, 장비제조(자동차), 에너지전력, 천연오일가스, 마나돌강, 식품음료, 중의약 등 7대 우위산업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등 과잉생산 해소 및 M&A -스마트제조공정, 3망 융합 추진,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정보안전 등 신흥산업 -금융, 물류,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 -건강, 양로, 문화 등 생활 서비스,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서비스아웃소싱 등 신흥 서비스 -100개 서비스 대기업 육성, 100대 서비스업 프로젝트 추진 	<p>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부품, 공정기계, 선진장비제조, 항공우주, 전자정보, 신소재, 바이오의약, 식품,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석유화학, 철강·유색금속 등 중점산업 -3D 인쇄, 공업로봇, 에너지 절약환경보호형 주택, 인공위성 등 신산업 -우수품질 식량 생산, 이외 가공류·과채·임차·묘목·수산·식용버섯 등 산업사슬 확장, 농산물·농부식품 가공 -연구개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과학기술서비스, 검사 측정 등 하이테크 서비스업 -금융, 비즈니스 전시,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회계자문 -물류·유통·양로·건강·문화·훈련 등 서비스 -소프트웨어·정보·건축 등 서비스 아웃소싱, 전자상거래
<p>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화학산업(석유, 오일가스) -중형트럭, 신에너지자동차, 변속기 등(현대자동차 및 삼성 SDI 전기배터리 등 유치) 자동차산업, 항공기 등 운수장비 -전자급 실리콘소재, 반도체포장검측, 인텔리전트단말기 제조,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정보산업 -항공우주, 장비제조, 자동차부품, 바이오의약 -문화산업(출판기지, 인쇄포장, 광고 등) -문화창의·관광·정보·과학기술·금융 등 상호융합, 출판·영상·공연·예술·애니메이션 -물류, 전시, 금융, 서비스아웃소싱, 하이테크서비스 등 -전통산업 고도화 및 생산과잉 해소, 유색금속·방직·야금·전자재 등 고도화, 기존 미부합 철강·시멘트·전해 알루미늄·판유리 및 고오염 산업 도태, 건설업 고도화 	<p>후베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물류, 연구개발, 전자상거래, 회계심사, 양로 등 서비스 -자동차, 기계전기, 선박, 의류, 농산물, 하이테크 등 수출우위산업 육성 -목축업·원예·임업·수산업 특화 발전, 공장형 종묘업·스마트농업·순환농업 등 현대농업 발전, 향촌관광·관광패저 농업의 규모 확대, 농산물가공 공정 심화 -지주산업육성 강화, 고부가가치 장비제조 등 6개 중점업종 고도화, 방직 등 전통산업 개선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3D 인쇄 등 차세대 정보기술 및 신소재의 산업화 추진 -바이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산업 -순환경제 및 저탄소산업 발전, 건설업 발전 -물류, 정보소비, 하이테크서비스, 전자상거래, 공정설계, 문화관광, 건강 등 서비스업 -문화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 제고

자료: 중국 중앙 및 31개 상·시·자치구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